
2022년 제7호 방송심의보고서

2022. 2. 11. ~ 2. 17.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특특 사이다 경제		
방송일자	2022. 02. 11.	시청률	0.028

【총 평】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5만 명대로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외 현황과 대응 방안을 알아보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경제&이슈에서는 올해 1,800억 원을 투입하는 탄소중립 실현 중기 대응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다뤘다.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사업 내용을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친환경 공정을 구축하는 기업에 이루어지는 지원을 소개하고 선도플랜트 구축, 친환경 공정 구축 지원, 선제적 투자 기업 지원 등의 내용을 전했다. '알쓸신잡'에서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희망대출 플러스에 대해 대출요건, 한도 등의 세부내용과 함께 특례보증제, 신용대출에 대해 소개했다.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 발생 이후 급증하고 있다. 다만 중증도 수준에 있어서는 오히려 강도가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신규 확진자수가 일일 10만 명에 육박하며 사망자 역시 이를 연속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백신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영국은 방역 규제를 해제했고 자가 격리 규정도 폐기를 할 예정이며 스웨덴도 방역조치를 해제하고 취약계층의 경우에만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한 달 후부터 백신패스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수는 5만 명을 돌파했는데 중증발전 비율은 한 달 전과 비교해 차이가 거의 없다. 서울의 경우 5명 검사 시 1명꼴로 확진판정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여 일반관리군의 경우 스스로 관리하게 하며 정부는 원격으로 지원하는 방역체계로 전환했다.

'경제&이슈'는 정부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기업체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소개했다. 탄소중립은 세계경제를 좌우하는 중요한 화두로 탄소중립 실패 시 설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 이에 정부가 지원해서 탄소중립 자금, 정보 등이 부족한 중견,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1,800억 원의 정부 지원금중 236억 원을 클린팩토리에 집중 투자한다. 클린 팩토리는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공장으로 탄소뿐 아니라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폐기물을 보다 적게 배출하는 공장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친환경 공정을 구축하게끔 하는 클린 팩토리 구축 지원은 사업장당 최대 1억 2천만 원씩 지원된다. 또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환하고자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환시설, 공정, R&D를 지원한다.

'알쓸신잡'에서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피해 회복을 지원을 위한 저금리 대출서비스인 희망대출플러스를 소개했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초저금리로 1천만 원까지 대출을 공급하는데, 다른 지원 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2. 02. 11.	시청률	0.002

【총 평】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기후 위기에 시니어 나섰다' 와 '환경 지키는 카페' 등을 통해 전했다. '병원까지 동행해 드려요'는 돌봐줄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사람을 위한 1인 가구 병원 동행 서비스를 소개했고, '재외국민 투표 준비 완료'는 20대 대선 외국인 투표 준비 현황을 소개해 투표의 중요성을 적절하게 전달했다. 이밖에 '불법주정차 금지 지켜야'는 불법주정차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불법주정차가 생겨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완성도를 높였다. '침체된 책방골목 살리기'는 인터넷 서점 확산과 재개발 추진으로 옛 명성을 잃어가는 보수동 책방골목을 소개했다. 특히 산업과 사회가 발달됨에 따라 우리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옛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학생들의 참여와 이웃들의 노력 등 다양한 접근으로 소개해 주목도를 높였다.

【구성 및 내용】

■ 기후 위기에 '시니어' 나섰다

이상 기후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지금, 그 책임을 기성세대가 져야한다는 운동이 유럽을 중심으로 생겨났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그에 동참하는 운동의 일환으로 '60+기후행동'이 출범했다. 60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손주 세대를 위해 환경운동가로 나서 '기후 위기를 물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움직임과 실천을 소개했다.

■ 병원까지 '동행'해 드려요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의 '1인 가구 병원 동행 서비스'를 소개했다. 고령자 위주의 기존 공공서비스와 달리 모든 연령층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됐으며 병원을 오가는 것은 물론 접수와 수납까지 도와준다. 동행 서비스는 콜센터(1533-1179)나 홈페이지(www.seoul1in.c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불법주정차 금지' 지켜야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사고 원인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한 지역이 아닌 충남, 서울, 충북 등 다양한 지역의 실태를 전해 문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주차 공간 확대와 운전자 안전 의식을 높이는 홍보 대책을 강화해야 하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이 자칫 다른 사람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전해 전달력을 높였다.

■ 침체된 '책방골목' 살리기

6.25전쟁 당시 피란민들의 생계와 교육을 위해 헌 책방들이 모여들며 형성된 부산 보수동 책방 골목'을 소개했다. 인터넷 서점의 확산과 재개발의 여파로 침체된 골목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책방골목 입구에 위치한 문화관에 설치된 도서 목록 키오스크는 원하는 책 제목을 검색하면 구입할 수 있는 책방을 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헌 책방이 갖기 힘든 데이터베이스를 지자체가 완성했다.

프로그램	한류에 빠지다 K컬처TV		
방송일자	2022. 02. 12.	시청률	0.003

【총 평】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아보고 K-콘텐츠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세계 시장에 널리 알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 창작 뮤지컬을 홍보하고 외국인에게 있기 있는 전통 시장의 음식을 소개해 주목도를 높였다. 특히 뮤지컬 ‘이퀄’은 해외 팬도 공연 전문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해 관람이 가능하다는 점을 소개한 점이 유익했다. 해외 팬의 의뢰를 받고 종로 광장시장에서 만원으로 먹방을 진행하는 데이브의 모습을 통해 한국의 전통 시장 먹거리 소개하고 한국 음식을 알려 흥미로웠다.

【구성 및 내용】

한국 문화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된 배경을 ‘K-창작 뮤지컬’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18년 한국 창작뮤지컬 최초로 대만에 진출해 2022년 1월 중국 상해문화 광장에서 라이선스 공연을 펼친 ‘팬레터’를 소개했다. 이 공연은 국내 누적 관객 8만 7천 명을 기록하면서 창작 뮤지컬 중 독보적인 흥행 효과를 거두고 있다. 뮤지컬 ‘팬레터’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 시절을 배경으로 한국 문학의 아버지 이상과 김유정을 모티브로 한 뮤지컬이다. 역사적 사실과 상상을 더한 섬세함이 돋보이며 문인들의 팬심과 사랑을 매혹적으로 그려냈다. 배우 이규형을 비롯해 K-POP 스타 슈퍼주니어 ‘려욱’, 윤나무, 백형훈 등 실력파 배우와 가수들이 총출동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제작 당시에 이미 중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수출할 것을 목표로 일본어와 중국어 각본이 동시에 진행이 될 정도로 해외 시장에 강점을 가진 작품이다. ‘팬레터’의 성공 비결은 철저한 기획과 준비, 섬세한 감성, 새로운 해외 진출 유형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주목도를 높였다. 또 이 뮤지컬에 출연하고 있는 아이돌 출신 배우 려욱의 인터뷰에서 뮤지컬 배우로 거듭나게 된 사연, ‘팬레터’에서 맡은 역할에 대한 소개 그리고 팬레터에 얹힌 개인적인 경험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 7인조 밴드의 실황 연주를 강점으로 꼽았는데 그만큼 음악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팬레터’ 만큼 기대를 모으고 있는 또 다른 창작뮤지컬 ‘이퀄’의 내용을 소개했다. 2020년 한국에서 초연된 일본의 동명 연극을 새롭게 제작하여, 17세기 유럽을 K-뮤지컬로 재연했다. 준케이, 백호, 홍주찬 등 K팝 스타 캐스팅이 연일 화제가 된 작품이다. ‘이퀄’은 오프라인 공연뿐만 아니라 전문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하면 해외 153개국에서도 관람이 가능하다.

‘한국을 달리는 유튜버 - 188만 유튜버 데이브 브이로그’에서는 데이브가 싱가포르에 사는 해외 팬의 요청으로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먹어보고자 서울의 광장 시장을 찾았다. 데이브는 외국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서울의 광장시장을 찾아가 제작진이 제공한 만원으로 어묵과 떡볶이, 김밥과 호떡 등 맛있는 겨울 간식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외국인들이 궁금해 하는 한국 문화를 대신 체험하고 소개해 몰입도를 높였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2. 02. 12.	시청률	0.029

【총 평】

‘꽃보다 된장, 손자를 살린 발효식품’ 편에서는 찰개떡고추장, 메주, 식혜, 홍도라지청, 어육장 등 우리나라 발효식품을 직접 만들어 전통음식의 맥을 이어가는 귀농 부부의 일상을 소개했다. 최근 패스트푸드가 청소년층의 입맛을 사로잡은 가운데 느리면서도 기다림의 미학의 상징인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부각시킨 점이 돋보였다.

전통고추장인 찰개떡고추장을 비롯해 조선시대 궁궐과 양반가에서나 담았다는 어육장 만들기 과정을 재연하여 주목도를 높였으며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어머니의 전통 장맛을 고집스레 지켜나가는 모습을 담았다.

【구성 및 내용】

12년 전 전라남도 영암군으로 귀농해 어육간장, 보리막장, 찰개떡고추장 등의 발효식품을 전통의 맛을 고수하며 살고 있는 부부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영암군 서호면에는 40가구가 모여 살고 있는데 이 마을에서 향아리가 가득한 마당이 있는 집이 바로 주인공 부부의 집이다. 아내는 어육간장, 보리막장, 찰개떡고추장 등 20여 가지의 발효식품을 만드는데 몸이 약한 손자를 위해 발효식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또 발효식품 제조과정을 배우러 온 부부에게 찰개떡고추장 만드는 과정을 전수하기도 한다. 주인공의 고추장에는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는데 찹쌀 도넛 반죽이다. 찹쌀 도넛 반죽을 발효 후 말려서 분말로 만든 뒤 고추장 재료로 넣어 찰개떡고추장을 만든다.

메주를 달아 놓은 하우스에서는 귀농 2년차 남편이 일하고 있다. 2년 전 퇴직을 하고 귀농한 남편은 메주를 빚고 띄우면서 아내가 겪은 고생을 몸소 느끼고 있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할 손자는 할머니가 만드는 건강한 음식을 좋아한다. 미숙아로 태어나 몸이 약했던 손자를 위해 할머니는 발효식품에 더 집중했다. 발효식품을 만들기 위해 오지 마을로 들어온 것도 손자를 위해서다. 매년 정월 초 아내는 어육장을 담근다. 일주일 간 말린 청게, 명태, 우럭 등 살이 단단한 여러 생선과 육고기를 넣어 만든다. 가마솥에 말린 생선을 찐 뒤 향아리에 넣을 메주도 먼지를 털어낸다. 얇게 저민 소고기도 어육장의 재료로 향아리에 같이 들어가 생선과 육고기의 단백질이 서로 어우러지게끔 한다. 마지막으로 씨간장을 넣고 짚으로 두른다. 또 직접 만든 엿기름에 고두밥을 넣어 식혜를 만들기도 한다. 아내는 밤새 삭힌 식혜를 밥알과 물로 분리하고 응고하는 작업을 한다. 남편은 엿기름 찌꺼기를 닭 모이로 주고, 손자는 토끼 아침밥으로 준다. 밤새 발효가 이뤄진 식혜를 이용해서 홍도라지청을 만든다. 밥알을 분리한 물을 장작불에서 이틀을 졸인 후 농축을 더 시키면 완성된다. 쓴 도라지를 편하게 손자에게 먹이기 위해 고민해 만든 홍도라지청은 어느새 아내가 지키고 싶은 전통의 맛이 되었다. 부부는 발효식품을 전통의 맛을 고수하며 행복한 농촌 생활을 보내고 있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2. 02. 13.	시청률	0.030

【총 평】

‘친북’은 지난 2월 1일 북한의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된 김정은 위원장의 기록 영화를 살펴보았다. 최근 북한은 ‘백두산 혈통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의 저항정신과 강인한 정신력을 이어받아 북한 주민들을 위해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이다. 지난 2월 6일 북한 최고 인민 회의에서 기대됐던 김정은 위원장의 대외 메시지가 없었던 점에 그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슈텔링’은 북한의 주민들이 겨울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북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북한은 식량난을 겪고 있지 않으며 낙후된 곳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변화된 북한을 인정할 것을 당부했다.

【구성 및 내용】

‘친북’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행보를 통해 북한의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와 현재 북한 상황을 살펴봤다. 지난 2월 북한 관영매체가 공개한 김정은 위원장 기록 영화에는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부인 리설주 여사 조용원 조선노동당 조직 비서 그리고 현송월 조선노동당 부부장. 김여정 부부장 등 핵심 인물들이 말을 타고 달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를 통해 전문가는 북한이 최근 ‘백두산 혈통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백두산이 상징하는 승리와 저항 정신 그리고 백마의 상징인 강인함과 활력을 이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과 김정일 위원장의 대를 잇는 정치적 지도자라는 점을 강하게 인식시키고 있다.

지난 2월 6일에 있었던 북한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외 메시지를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대외적으로 북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다소 아쉬운 것은 사실이며 아마도 한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과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이어서 발표를 발표를 미룬 것으로 판단된다.

‘이슈텔링’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겨울나기에 대해서 최근의 모습을 전했다. 북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지는 않으며 북한의 유일한 겨울나기 반찬이 김치냐는 질문에 2000년대 후반부터 많이 바뀌었고 해안가에서는 수산물, 농촌에서는 산나물 도시에서는 고기와 채소를 이용한 다양한 통조림을 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북한의 세탁기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약 60만원 정도인데 북한 주민들이 대부분 장마당을 통해서 부수입을 얻고 있기 때문에 세탁기의 보급은 보편적이다. 다만 식수 사정이 좋지 않고 수질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수준은 약 10년 전 상황이며 북한 주민들이 걱정스러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프로그램	라떼의 정석, 끈대할매라구요?		
방송일자	2022. 02. 13.	시청률	0.007

【총 평】

‘강력계 형사의 추억’과 ‘결혼 그리고 두 번째 인생 시니어 모델’편은 경찰관으로 일하다 50대에 은퇴 후 시니어 모델에 도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주인공을 소개했다. 경찰관 생활의 애환, 가족 이야기, 시니어 모델 입문 동기, 최근 활동 등의 순으로 이야기를 구성해 몰입도를 높였다. 특히 주인공은 형사 생활 중 죽은 시신을 만지며 트라우마가 몇 차례 생겨서 힘들었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에 형사 생활을 그만두었다. 100세 시대에 누구나 꿈을 세우고 이를 위해 도전하면 길이 열린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노후 시대를 맞았거나 앞두고 있는 시니어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한 점이 긍정적이다.

【구성 및 내용】

전직 강력반 형사, 현 시니어모델로 활동 중인 주인공을 초대하여 강력반 형사 생활의 추억과 기억나는 범인, 결혼과 인생의 전환점, 시니어모델 도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주인공은 어릴 적 부모의 사기 문제로 경제적 문제로 고생하다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싶어 형사를 시작했다. 형사가 된 후 맡은 첫 살인 사건은 바닷가 야산에서 발견된 변사체 사건이었다. 정황 증거만 가지고 취중에 있는 범인의 자백을 받았다. 범인이 자백을 했지만 경찰서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취중인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진술이라 증거채택이 안 되었고 증거부족으로 석방되어 미제사건으로 남아 가장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형사 생활의 힘든 점을 묻는 질문엔 대부분 과로라고 답했다. 주인공은 과로로 만신창이가 되어 허리를 심하게 다쳐 허리에 인공뼈를 박는 수술을 받고 1년 동안 힘들게 재활치료를 받았다. 형사 생활을 계속하고 싶었으나 나이가 50살 될 때쯤 그동안 너무 힘들었던 게 생각났고, 가족들하고 점점 멀어졌다는 생각이 들어 아내와 상의 후 명예퇴직을 결정했다. 형사를 그만두고 산티아고로 간 여행은 사고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산티아고에서 영어를 못해 기차표를 사지 못해 역에서 4시간동안 표를 사기 위해 어플을 설치해 어플에 나오는 발음을 따라하고 4시간 만에 표를 샀다. 그러다 보니 사고방식이 많이 바뀌었다. 현재 주인공은 시니어 모델로 활동 중이다. 형사 생활 중 죽은 시신을 만지며 트라우마가 왔고 꿈에서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나 범죄 현장이 많이 나왔다. 무의식중에 지나가는 사람 얼굴이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했다. 그래서 형사 생활을 그만 두고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

2019년에 시니어 모델 선두주자로 일하고 있는 김철두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아내와 함께 보다 아내가 한 번 도전해 보라고 권유해 모델 아카데미를 찾아 열심히 배웠다. 그 해 서울 패션 위크에 7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무대에 서게 되었고, 지금까지 시니어모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도 피트니스 대회에서 입상도 하며 몸 관리를 하고 있다.

프로그램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방송일자	2022. 02. 13.	시청률	0.021

【총 평】

‘짓밟힌 20대 - 강제징집과 녹화·선도 공작사건’은 1980년부터 일어난 학생 운동권의 강제 구금과 가혹 행위, 강제 군입대 등을 전했다. 학생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강제 징집되고 고문 또는 녹화공작에 내몰린 여러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었다. ‘국가는 인권 침해에 대하여 사과하고 화해로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진실화해 보고서가 나온 지 12년째이고, 국방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재에 이르는 상황을 담아내어 더욱 안타까웠다.

【구성 및 내용】

전두환 정권은 정권 기반이 매우 취약했다. 그래서 전두환 정권은 학생 운동을 두려워했고 그들을 어떻게든 탄압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강제 징집과 녹화, 선도 공작 사건에 대해 자세히 전달했다. 5명의 피해자를 통해 당시 그들이 겪었던 인권 유린과 상상할 수 없는 고문 등 가혹 행위 등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삶을 살게 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씨는 연세대학교에 83학번으로 재학 중 광주 민주항쟁을 알게 된 후 학생 운동에 뛰어들었다. 대학 4학년 2학기에 휴학을 한 후 입대했는데 2달 만에 보안사로 끌려가 모진 고문과 불법구금 및 가혹 행위를 당했다. 당시 받은 고문으로 인해 제대 후 지금까지도 약을 복용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78학번 ○○○씨는 1980년 5월 전두환 정권의 광주 학살 소식을 접한 후 이를 알리기 위한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과정에서 보안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다. 보안사 분실에서 고문을 당하고 난 후 강제 징집되어 포병으로 배치되었고, 그 후로는 자신의 동향에 대해 경찰서 정보과에 보고를 해야 했다. 이런 감시는 제대 후 2년까지 계속되었다.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8월 19일 학원소요 근절을 천명하였고, 1981년 4월 2일에는 소요관련 학생들을 전방부대에 입영 조치할 것을 명령하여, 국방부는 소요관련 학생들의 강제징집을 제도화했다. 1980년 9월부터 1984년 11월까지 특수 학적 변동자 즉, 학생운동 참여 학생의 강제징집 수가 1,15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경북대학교 82학번 ○○○씨는 학생 운동을 하다 반정부 조직사건에 연루돼 2학년 2학기에 강제 입대를 당했다. 당시 그는 만 18세로 징집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입대를 했고 부대에서 온갖 고문을 겪고 휴가 중에는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다. 이 후 2006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강제 징집, 녹화, 선도 공작이 군사 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학생운동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이후 2010년 진실화해 위원회는 보안회가 실시한 녹화공작 과정에서 가혹행위 등 프락치 활동으로 신체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진실 규명했다. 또한 국가는 이에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방송일자	2022. 02. 13.	시청률	0.005

【총 평】

‘디지털 혁신!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다’는 시각장애인 보조공학 기업 대표가 출연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혁신을 어떻게 활용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어떤 제품을 개발해 도움을 주고 있는지 등을 소개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혁신으로 휴대용 점자쓰기 도구 등 각종 편의기기를 개발한 과정과 성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해 정책의 유용성을 전달한 구성이 돋보였다. 또 휴대용 점자쓰기, 휴대용 메모장, 정보접근성 토털서비스앱, 버스 번호인식 AI기능, AI 주차 공유 서비스 등의 실제 모습과 쓰임새를 소개해 이해도를 제고했다.

【구성 및 내용】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 솔루션 기업의 대표를 초대하여 회사의 디지털뉴딜 업무영역, 기술, 구성원, 그리고 사업의 대상인 시각장애인에 대한 기술 활용 등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보조공학 솔루션, 휴대용 점자쓰기 도구, 시각장애인이 개발하는 보조공학, 정보접근성 토털서비스 앱 ‘플로워’ 소개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보조공학 솔루션은 제품을 만들 때부터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전제로 하는 기술 개발로 예전에 비해 장애인의 고민을 담는 개념이다. 휴대용 점자쓰기 도구는 기존에도 전자식 휴대용 점자판은 있었지만 높은 가격과 현지화에 있어 문제가 있었다. 휴대용 점자쓰기 도구는 전기 없이 사용 가능하고 나라의 구분이 필요 없어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세계에서 유일한 휴대용 점자판으로 이미 여러 나라에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해당 기기는 맹학교의 수학선생님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얻거나 발굴하여 검토를 거쳐 개발에 착수한다. 시각장애인이 개발하는 보조공학은 회사 내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 2명이 시각장애인으로 개발 능력이 출중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정보접근성 토털서비스 ‘플로워’는 저시력 장애인들을 위한 저렴한 서비스 제공을 실현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확대 및 명암 고대비 기능, 쌍방향 실시간 화면 연동 기능 등을 가지고 있다. 어플리케이션에 AI 기술과 접목한 버스번호 인식기능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AI바우처 사업에 선정되어 기술 개발이 되었다. ‘플로워’는 향후 전맹 시각장애인을 위해 글자를 점자, 음성 등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강의나 독서확대기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AI엔진을 더욱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서버 구축이 요구된다. 또 기업의 대표는 평등한 사내 문화 정착을 위해 회사 내에서 직원들과 직함을 부르지 않고 영어 이름을 부른다. 그는 직원들과 함께 좀 더 고생하면 시각장애인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잘 해내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을 통해 벤처기업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스타트업들이 도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